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3. 15. / (총 11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정책지원팀	팀 장 담 당 자	성 창 현 윤 민 수	전 화	044-202-3803 044-202-3804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	과 장 담 당 자	노 혜 원 이 승 훈	전 화	044-200-2679 044-200-2295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과 장 담 당 자	전 상 료 김 준 하	전 화	044-205-5310 044-205-5318
중앙사고수습본부 인력관리팀	팀 장 담 당 자	송 준 현 장 태 영	전 화	044-202-3725 044-202-3726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과 장 담 당 자	김 국 일 유 정 민	전 화	044-202-2420 044-202-2404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파견 의료 인력의 피로도 경감 및 교체 방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지원 계획 ▲시·도별 코로나19 대응 상황 및 조치 계획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파견 의료 인력의 피로도 경감 및 교체 방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지원 계획 ▲시·도별 코로나19 대응 상황 및 조치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시적으로 꺾였지만 아직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보다 철저하고 꼼꼼하게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피해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국외 유입 차단이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필요한 대책을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하였다.

- 한편, 공무원들의 집단 확진 사례가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공무원 및 정부청사 방역을 보다 강화하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하였다.

## 1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 정부는 오늘 '코로나19'로 대규모 감염병 피해가 발생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봉화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 감염병으로는 처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사례이며, 인구 수에 비해 환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 지역을 지정한 것이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완화 등 세부적인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 2 파견 의료 인력의 피로도 경감 및 교체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동안 지역사회의 코로나19 확진자 진료와 방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사 1,128명 △간호사 793명 △간호조무사 203명 등을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으로 파견하였다.
- 아울러 파견 의료인력이 최적의 환경에서 수준 높은 진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건강과 안전, 적정 주기의 교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 먼저 하루 8시간 -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초과 근무는 적정 수준으로 보상하고 있다.

- 공공인력은 2주, 민간인력은 1개월의 기한\*을 두고 근무하도록 하며 해당 기한 경과 시 신규 인력으로 교체하고 있다.

\* 단, 의료 인력이 요청할 경우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 또한, 쌓인 피로를 풀고 감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파견에서 복귀한 의료 인력이 희망하는 경우 2주간의 자기 모니터링 기간을 부여하고, 보건소에서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담당관을 지정해 △건강 상황 모니터링 △숙소 목록 및 교통편 제공 등을 지원·점검하고 의료인력에 대한 예우 역시 강화한다.

- 이와 함께 파견 의료인력이 적시에 체계적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확한 인력 교체 시기와 그 규모를 면밀하게 파악할 계획이다.

- 특히, 공공인력과 함께 공개모집을 통해 확보한 민간 의사·간호사 인력 등 다양한 인력 집단(풀)을 더욱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하고 있는 의료 인력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예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3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지원 계획

- 정부는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행정·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① 건강보험 지원 :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재정감소 등을 감안한 건강보험 지원

② 예산 지원 : 코로나19 치료에 필요한 예산은 예비비·추경으로 신속 지원

③ 손실 보상 : 의료기관 손실 보상, 경영상 어려운 의료기관 응자 지원

□ 먼저,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① [급여 지원] 건강보험 선(先) 지급\* 전국 확대 및 조기 지급

\* 선 지급 : 전년도 같은 달 건강보험 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

○ 대구·경북 의료기관에만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매출액이 감소한 대구·경북 지역 외의 의료기관도 전년도 같은 달 건강보험 급여의 90~100%\*를 우선 받고, 사후에 차액을 정산할 수 있게 된다.

\* 감염병관리기관·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기관·선별진료소 설치기관·국민안심병원 등은 100%, 그 외 의료기관은 90% 선지급

○ 또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한 후 10일 내 받을 수 있도록 청구 후 지급까지의 소요기간을 12일 단축(22일→10일)하는 조기 지급 제도가 시행 중이다. (2. 28.~)

### ② [치료 지원]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지원 강화

○ 중환자 등을 치료하는 음압격리병상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음압격리실·중환자실 수가를 인상\*한다. (3. 20.~)

\* 중환자실 내 입원격리 관리료 100% 인상, 음압격리실 입원료 20% 인상 등

○ 병원 내 감염 예방을 위해 호흡기질환 진료 구역을 분리·운영하는 국민안심병원(316개소)에는 감염예방관리료(20천 원)와 격리관리료\*를 지원하고 있다. (2. 24.~)

\* 일반 격리 : 38~49천 원, 음압 격리 : 126천 원~164천 원

○ 생활치료센터(16개소)에 입소한 환자가 더욱 잘 관리·치료받을 수 있도록 입원에 준하여 건강보험·진료비\*를 지원한다. (3월 말~)

\* 입소자 초기 평가, 코로나19 검체 검사, 흉부 X-ray, 상태 모니터링 등 지원

### ③ [행정기준 유예] 인력·시설 신고 및 조사·평가 유예

- 선별진료소 인력 파견 등 인력·시설이 변동되더라도 변경신고를 유예하고, 종전('19. 4분기)의 인력·시설 기준을 적용한다\*. (2. 19.~)

\* 간호사 수 대비 병상 비율에 따라 입원료 등 차등 지급(간호등급에 따른 차등)되나 이 조치로 인해 간호 인력이 줄어들어도 기존 수가 적용 가능

- 또한,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상황을 감안하여 의료기관 현지 조사와 평가\*도 유예한다.

\* 뇌·뇌혈관 MRI 집중 모니터링, 요양기관 기획조사, 항생제 사용 적정성 평가

□ 둘째, 코로나19 치료에 필수적인 비용은 신속히 지원한다.

#### ① 시설 설치·운영 지원

-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370개소)에 선별진료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물품비를 지원\*하고, (4월~)

\* 컨테이너, 텐트·천막, 이동형 음압기, 열감지기, 이동형 X-ray, 개인보호장구 등

- 보건복지부 지정 감염병전담병원 중 운영 기관(67개소)에 시설·장비비,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 (3월 말~)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중증환자 긴급치료 병상을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 장비·운영비를 지원한다. (3월 말~)

#### ② 의료인 방역물품 지원

- 의료진 감염 예방을 위해 보호복(레벨D), 방역용마스크(N95), PAPR(전동식 호흡보호구), 음압기 등 방역 물품 지원을 계속 추진한다.

- 정부는 보호복(레벨D)을 최대 1만 명의 환자를 진료할 때 필요한 수량만큼 상시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 보건용·수술용 마스크는 의료진의 몫을 최우선 지원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1일 100만 장을 기준\*으로 할당한 상태이다.  
\* 의료기관 종사자 수 및 입원환자 수 고려 물량 배정 (의료계 합의, 3. 5.)
- 특히, 지난주는 업체들과 계약 과정에서 1일 144만 장까지 공급량을 확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지난주 중반 이후 1일 180만 장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 아울러 배분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거나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 배분을 맡은 의료단체들과 일선 의료기관 간의 핫라인을 신설하였고, 수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전산시스템도 구축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료기관의 마스크 수급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부족한 경우 즉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 ③ 인프라 확충 (추경)

- 120개의 음압 병상을 추가 확충(198→318 병상)하고 4개 권역(영남, 중부, 인천, 제주)의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을 추진한다.
- 셋째, 코로나19 치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한 보상과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의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 ① 의료기관 손실 보상

-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조치 이행 과정에서 의료기관 등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부에서 이를 보상\*한다.

\* ▲코로나19 환자 치료 비용, ▲정부, 지자체 지시로 병상 대기 중 발생 손실, ▲정부, 지자체 조치 이행을 위한 시설개조, 장비구입, 환자전원, 인력활용 소요비용 등

-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은 3~4월 중 조기에 보상을 추진하고 (1,500억~2,000억 원)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되면 손실보상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보상을 할 예정이다.

\* 대구·경북 의료기관·국가지정치료병원·감염병 전담병원·폐쇄·업무정지 병원

\*\* 보건복지부 차관 및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임태환) 공동위원장,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예방의학회, 법무공단 등 의료계·전문가 참여 (총 14명)

## ② 의료기관 융자 지원 (추경)

-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한 경영 곤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개·보수, 경영안정자금 등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 지원 대상, 이자율, 상환기간, 융자한도 등 세부내용은 마련 중이며, 융자 지원을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 후 빠르면 4월 중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5월 중 실행할 계획이다.

## 4 시·도별 코로나19 대응 상황 및 조치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부산, 울산, 경남의 코로나19 대응 상황 및 조치 사항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3개 시·도는 각 시·도별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환자 치료체계\* 구축 현황, 생활시설·다중이용시설 등 방역 관리 현황과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하였다.

\* 환자 분류 체계 구축 현황, 병상 확보 현황, 생활치료센터 현황 및 향후 계획

- 정세균 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중점 점검\*은 마무리되었지만, 앞으로도 기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계속 서면 등을 통해 보고 받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3. 12) 서울, 인천, 경기, 강원, (3. 13.) 대전, 세종, 충북, 충남, (3. 14.) 광주, 전북, 전남, 제주, (3. 15.) 부산, 울산, 경남

※ 대구, 경북은 3월 14일 별도 점검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할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니,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도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방역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 < 붙임 > 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 <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자료  
2. 코로나19 의료기관 수칙 홍보자료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홍보자료  
4.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홍보자료  
5.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카드뉴스  
6.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  
7.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  
8.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  
9. 마스크 착용법 홍보자료  
10.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홍보자료  
11.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홍보자료



## 붙임1

##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하여 방역당국 및 현장 종사자들과 관련한 허위·왜곡정보를 유포하거나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현장 종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방역체계에 혼선을 가져와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 허위정보 등 주요 사례 >

#### < 1339 장난전화 유튜브 영상(2. 26.) >



코로나19 상담원에 "시X XX아"...물상식한 장난전화 / YTN

▲ 1339에 장난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는 유튜브 영상 게재(2. 26.)

→ 구글 통해 해당 영상 삭제, 경찰청 수사 의뢰

#### < 중국인 유학생 도시락 관련 허위정보 페이스북 등 게시(3. 1.) >

중국 유학생들에게 제공된 도시락  
문재인 이름과 청와대문양이 그려져있다  
대구에 독송골고 달려간 우리의료진들은  
심지어 숙소마저 자비로 해결하라고  
방호복 대신 가운을 입으라 권한다  
우리 의료진들에겐  
너무고마워 어쩔 줄 모르며...  
대구시장상인들이  
도시락을 준비해 줬다한다ㅠ



▲ (도시락 사진) 중국 유학생에게 문재인 대통령 명의 도시락 제공되었다고 주장  
→ 실제로는 우한 교민에게 제공된 도시락

▲ (대구 의료진 처우 관련) 의료진 숙소 등 자비 해결하고 있으며, 방호복 대신 가운 착용 권고하였다고 주장

→ 지자체 지원팀 구성, 숙소 등 불편 없이 지원, 경제적 보상 등 충분한 예우지원 위한 의료인력 지원·운영 지침 마련

→ 감염 위험 정도에 따라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과 전신보호복 중 선택 가능, 2.18. 이후 대구·경북 전신보호구 14만 개 지원 (3. 1. 기준)

## 붙임2

##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 □ 한국기자협회 「코로나19 보도 준칙」 (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 「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 '○○페렴' 등의 사용은 국가·종교·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역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2020년 2월 21일

한 국 기 자 협 회

## 붙임3

##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